



신한경영포럼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고객중심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 진옥동 신한금융회장

### “금융사고 예방 위해 고객입장에서 판단”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건, 사고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은부분도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4일 그룹사 최고경영자와 유관부서 최고책임자 40명과 함께 ‘고객중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사건, 사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개선 방안을 엄중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정보보호 등 영역별 핵심 실천 과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 및 고객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진 회장은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건, 사고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경영진은 정해진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전략 수립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모든 사회적 흐름에 가치기준은 고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 분양 캘린더

### 첫째 주 전국 9곳서 총 9752가구 분양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752가구(일반분양 57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럴양정’ 등이 청약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 오픈은 설 연휴 영향으로 한 주 쉬어간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49~59㎡, 2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도보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위치하며 경인로,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 및 서울권 접근이 용이하다.

두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럴양정’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총 264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59~76㎡, 아파트 24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김대환 기자 kdh@

# “새 경영승계 프로그램, 모범 사례 만들 것”

DGB금융 차기 최고경영자 관심  
회추위 경영승계 프로그램 가동  
업계 최초 전방 외부기관 참여  
공정성·투명성·독립성 확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DGB금융그룹의 차기 최고경영자(CEO)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DGB금융이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경영승계 프로그램 전반에 외부 기관·전문가를 참여시키면서 새 경영승계 프로그램 성패도 관심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DGB금융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초 차기 회장 결정을 목표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최근 DGB금융 회추위는 지난달 19일 비공개로 선정한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대상으로 ▲회추위 면접 ▲외부기관 전문가 인터뷰 ▲외부기관 행동면접 평가 및 인적성 검사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2차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할 예정이다.

롱리스트에는 현직 은행장·부사장 등 상시 후보군을 포함하는 내부 후보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2본점에는 DGB금융지주가 위치하고 있다. /DGB금융

와 전직 은행장을 포함한 외부 후보 등 10명 인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은 이번 경영승계 프로그램 각 절차에 복수의 외부 기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추위의 결정을 돕도록 했다. 경영승계 과정 전반에 외부 기관을 참여시킨 것은 DGB금융이 국내 금융지주 중 최초다.

행동면접·심층 인적성 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회추위가 각 후보자를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DGB

금융의 설명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경영승계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가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종전 경영승계 방식과는 달리 복수의 외부 기관이 절차에 관여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의 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DGB금융 관계자는 “외부

기관은 회추위 위원들의 평가를 돕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후보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결정은 회추위 위원들의 권한으로, 외부 기관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GB금융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을 뿐 특정 후보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추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도 CEO 선임 과정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며 “관련 기관이 공개되면 여러 외압 및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경영승계 모범 관행 가이드라인은 외부기관, 외부전문가, 심층 평가조치, 다면 평가 등 평가주체 및 방식을 다양하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회추위는 당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핵심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부 기관은 행동면접 및 심리 검사를 위한 기술 제공을 맡을 뿐 평가에는 관여할 수 없어 특정 후보의 우월리와의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231@metroseoul.co.kr

## 빗썸 ‘무료 수수료’ 종료… 점유율·실적 반등 과제

오늘부터 모든 거래 0.04% 수수료  
무료이벤트로 유입된 고객 이탈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5개월 만에 종료하고 다시 유료로 전환한다. 시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빗썸의 점유율 유지와 실적 향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오는 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0월 4일 0.04~0.25%의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빗썸의 수수료 무료정책은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빗썸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9월

10%에 불과했지만 10월 20%, 11월 35%, 12월 말 51%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빗썸이 시장점유율 51%를 기록하면서 업비트(47%)를 누르고 점유율 선두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빗썸 점유율은 4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1위 자리는 다시 업비트에 넘어갔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의외’라는 평가였다.

빗썸이 4개월 만에 수수료를 유료화한 것은 ‘수익’ 때문이다. 수익을 포기하면서 유동성을 높였지만, IPO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중요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요

건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준시가 총액 300억원 이상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급감했고 3분기에는 106억2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는 수수료 수익이 0원이었기 때문에 2023년 순이익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유입된 신규 이용자를 붙잡는 것 역시 과제다.

빗썸의 수수료(0.04%)는 업계 최저 수준이자 기존 대비 84% 낮아진 수치

로, 업비트(0.05%), 코인원(0.2%), 고팍스(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빗은 여전히 수수료 무료다.

다만, 시장점유율 1등 업비트와 수수료 차이가 0.01%포인트(p) 밖에 나지 않고, 0.04%의 수수료를 적용 받기 위해 별도 쿠폰을 매월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이탈 우려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와 수수료차이 나지 않고, 코빗 역시 수수료 무료를 지속하고 있어 이용자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며 “확보된 유동성 활용이 올해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GTX發 부동산 관심 ↑… 평택·춘천 등 인근 분양단지 주목

평택, 두개 노선 지나는 최대 수혜지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분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안이 분양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는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한다. 여기에 GTX-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돼 관심이 커졌다.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쾌속 교통망이 구축돼서다. GTX-B와 GTX-C노선 구간도 연장된다. GTX-B는 인천대~

마석에서 가평, 춘천까지 노선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강원까지 약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GTX-C의 경우 덕정~동두천, 수원~아산까지 노선이 더 연장된다. 경기 북부권과 충청권까지 서울생활권으로 편입, GTX-A·B·C 연장 노선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은 경기도 평택이다. 평택시에는 GTX-A노선과 C노선이 모두 포함된 평택지제역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예정된 GTX-A·B·C 정차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곳은 평택이 유일하다. 평택은 이번 GTX 연장 발표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힌다. 강원 춘천과 충남 아산도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GTX-B 연장 노선에 포함된 강원 춘천에는 현재 용산까지 도달하는 ITX-청춘이 운행 중이다. 또 이번 GTX-C 연장 노선에 속한 충남 아산은 KTX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GTX 노선이 개통되면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다.

평택시에서는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59·84㎡ 1182가구가 분양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다. 또 도보권에 고등학교까지 예정돼 있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6년 예정)와 아주대 평택병원(2030년 예정)도 가깝다. 이밖에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소규모 문화시설이 자리하며, 주변에 은행·병원·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집적된 중심상업지구도 인근에 조성될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 약사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스키’ 84~140㎡ 228가구를 분양 중이다. GTX-B노선이 연장되는 춘천역을 비롯해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또 초·중학교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수변공원도 단지와 연결돼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